

일본어교직과정 예비교사들의 일본문화 체험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 옥 성*·한 미 희**

(e-mail : jungsung@nsu.ac.kr · diaplus@ns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1. 평균과 표준편차 |
| 2.1. 교수효능감에 대한 이해 | 4.2. 교수효능감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 2.2. 문화체험과 교사의 역할 | 4.3. 사후검증 결과 |
| 3. 연구방법 | 4.4. 문화체험과 교수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
| 3.1. 연구대상 | 4.5. 문화체험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 3.2. 연구도구 | 5. 결론 |
| 3.3. 분석방법 | |

키워드 : 日本語の専攻(Japanese Majors)、教職過程(teacher training curriculum)、文化体験(cultural experience)、予備教師(respective teacher)、教授效能感(teaching efficacy)

1. 들어가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의 효과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와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는 그 규모에 맞추어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교사의 역량이 시대가 변화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이 전공하

* 제1저자, 남서울대학교 글로벌 지역문화학과 일본어지역전공. 정교수, 일본근대문화

** 교신저자,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교육학

고 있는 교과와 지식과 가르치는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융복합적인 자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교직관련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 이외에도 수업실연, 현장실습, 특성화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직과정을 현재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수를 하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이 우수한 교사로서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교과와 전문적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어 전공 예비교사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교직이수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믿음, 학생을 동기화시키고 학업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 등의 교수 효능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교직과 교직경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교직환경에 대하여 기대 갖는 심리적인 긍정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와 같은 교수 효능감은 예비교사들이 이를 함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교직을 충실히 이수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는 중요하게 지각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 효능감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를 함양하기 위한 예비교사들에게 어떤 경험을 어떻게 제공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²⁾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문화체험이나 연수 등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³⁾는 연구는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⁴⁾.

김애동 · 안병걸(2015)⁵⁾의 연구에서도 일본 해외연수를 참여한 학생들의 전 ·

1) 이금재 · 허영주(2015)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과의 관계 분석」 『日本文化學報』 67, 한국일본문화학회, pp.87-103.

2) 정동욱(2010) 「가상현실공간에서의 수업실습이 예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8-128.

3) 강명호(2005) 「일본문화체험과 일본어학습과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일본언어문화』 7, 한국일본어문화학회, pp.101-120.

4) 김활란(2006) 「문화체험을 통한 일본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27-143.

5) 김애동 · 안병걸(2015) 「일본단기연수를 통한 학습동기유발 및 일본문화에 대한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화학』 67, 한국일본어문화학회, pp.75-98.

후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일본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향상되는 학습동기유발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결국 학습자의 일본과의 교류의욕은 학습자의 일본어 면학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강명호(2005)⁶⁾도 일본방문 경험이 학업성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일본문화체험이나 방문이 그들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학업과의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사료된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에게 문화적 체험이나 경험 등이 교수적 효능감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수 효능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문화 체험에 대한 단기적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이 ‘전인적인 인간양성’을 목표로 교사의 역할이 이를 위해 ‘가르치고, 지도하며, 이끈다.’ 라는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기회를 갖고 교직이수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대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사양성을 위한 교수 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과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효과적인 일본어 교육의 실현도모를 위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교직이수과정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이 확대화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수효능감에 대한 이해

교수효능감은 반두라의 개념을 교수에 적용한 것이며 이는 교사 자신의 효능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다.⁷⁾(Bandura, 1997) 이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현상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그 경험이 성공적으로 해석되어 개인의 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경험들, 즉 믿음의 원천(sources)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6) 강명호(2005) 「일본문화체험과 일본어학습과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일본언어문화』 7, 한국일본어문학회, pp.101-120.

7)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Freeman.

한다.⁸⁾(정동욱, 2010). Bandura(1997)⁹⁾는 이 믿음은 자기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효능감의 근거가 되는 자기효능감은 어떤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조직·실행하기 위한 개인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 생리적 상태(physiological state)의 해석을 통해 구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성공경험은 개인의 성공적 수행경험을 말하며 가장 영향력이 크고, 대리경험은 다른 사람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며 얻어지는 경험이다. 또한 사회적 설득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 자기효능에 대한 정보와 격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생리적 상태는 과업을 수행하기 전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어지는데, 효능기대감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이며, 결과기대감은 행동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 또한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라고도 불리어지는데 학습자의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고 교수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교수 효과성에서 개인차에 대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효능감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믿음인 개인 효능감과 교수를 통하여 학생을 동기화시키고 학업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수의 효능성, 즉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¹¹⁾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으로 교수행동

8) 정동욱(2010) 「가상현실공간에서의 수업실습이 예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38-128.

9)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Freeman..

10) 송윤희·유지은(2019). 「예비 기독교 교사의 영적안녕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교수효능감 관계」 『기독교교육정보』 60,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pp.123-150.

11) 배선아(2012) 「초등예비교사의 일반 교수효능감과 실과 교수효능감 비교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2), 한국실과교육학회, pp. 193-211.

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지는데 교사가 교수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교육의 실제적 수행과정에서 교사의 교수 능력간 개인차를 설명하고 교수-학습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교수행동-학습자의 학습 등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신념 그리 교수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그러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교수 효능감을 위해서 예비교사들에게 어떠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이 개입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2. 문화체험과 교사의 역할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관련학자 및 교육자들에게 수 많은 도전적 과제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특히 문화의 개념이 한 마디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문화를 외국어 교육에 접목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상사에 대해 공동체가 공유하는 명시적 및 묵시적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지식으로서의 문화는 가장 명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의 문화는 특정의 생활방식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공유되는 상징체계이다.¹³⁾

물론 통상적으로 문화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지지를 통한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이문화(異文化)를 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문화란 사람이 이미 습득하여 익숙해진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말한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인해 직접 접하는 문화는 이문화인 것이다. 즉 동시대를 살며 연령이 비슷한 한국, 일본 대학생들도 같은 아시아권에 살고 두 나라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에게 서로의 문화는 이문화인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이 대두되면서 문화적 이해와 체험이 얼마나 외국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

12) 김영한·추경진(2010)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과 관계」 『특수아동연구』 12(4), 한국특수아동학회, pp. 413-432.

13) 박준연(2012) 「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49-73.

다.¹⁴⁾그러면서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교육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특히 첨단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가 확대되면서 정보 검색과 다양한 교류로 인한 문화적 만남은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더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외국어교육에 문화를 도입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해당 언어가 가진 배경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더불어 높은 학습효과까지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본 연구에서의 문화체험은 사실 현재 현직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위해서 의무 연수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이론과 방법, 직무, 상담, 매체활용 등의 다양한 교육, 경험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및 역량이 단지 자신의 전공교과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교사에게는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 기술 능력 즉 교직전문성이 필요한데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사일수록 전문성 신장 욕구 또한 높고 자긍심도 높아 효과적인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행위를 위한 자율장학을 꾸준히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다양한 능력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교사의 전문성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부단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으로 교직에 입문했다라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는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즉 교사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 바람직한 교육철학, 교육적 문제에 대, 한바른 인식, 교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 및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의 능력과 기술습득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관련된 교육 문제의 이해 등이 필요하다.¹⁶⁾

문화체험은 최근들어 현장체험이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향

14) 김애동·안병걸(2015) 「일본단기연수를 통한 학습동기유발 및 일본문화에 대한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67, 한국일본어문화학회, pp.75-98.

15) 김활란(2006) 「문화체험을 통한 일본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27-143(49-51). 재인용

16) 배재현(2019) 「에비유아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3), 한국산학기술학회, pp. 149-156.

이 있다. 물론 문화체험이나 현장체험이라는 용어는 교실과의 연계보다 문화교육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문화체험’은 범박하게 목표문화에 노출되어 경험하게 되는 일체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문화)현장체험은 교육공간을 이동하여 현장문화를 경험하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박하게 문화를 체험한다는 의미, 문화현장의 체험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¹⁷⁾ 본 연구에서의 문화체험은 (문화)현장체험과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며 기간으로 며칠간의 단기의 기간부터 6개월 이상으로 진행되는 여행, 전통·대중문화 체험, 연수, 한학기 학점교류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 중에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은 의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N대학교 재학중인 일본어전공 교직과정 수업을 듣는 예비교사이다. 2019년도 총 인원은 31명이며 2-4학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학생은 8명(25.8%), 여학생은 23명(74.2%)이다. 그리고 일본문화체험에 대한 횟수와 기간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일본문화체험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a그룹과 1회 체험한 b그룹, 2회이상 체험한 c그룹, 3-4회 체험한 d그룹, 그리고 6개월 이상 단기 연수를 체험한 그룹을 e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이들은 일본문화체험에 대한 조사와 설문지 대하여 참여하였다. 일본문화체험에 대한 횟수와 기간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8	25.8

17) 이은숙(2010)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고찰」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pp. 331-353.

	여	23	74.2
학년	2	5	16.1
	3	16	56.1
	4	10	32.3
문화체험(횟수, 기간)	a(0)	5	16.1
	b(1)	13	41.9
	c(2)	8	25.8
	d(3-4)	2	6.5
	e(6개월이상)	3	9.7

3.2. 연구도구

예비교사 교수효능감 척도는 Enochs와 Riggs(1990)¹⁸⁾가 개발한 예비교사용 과학교수 효능감 검사지(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B, STEBI-B)를 번역하여 정동욱(2010)이 사용한 것 적용하였다(정동욱, 2010).¹⁹⁾ 이 척도의 총 문항은 21문항으로 이 척도의 하위요소인 개인적 교수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11문항 그리고 교수결과 기대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²⁰⁾ “매우 동의한다.”에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까지의 5점

18) Enochs, L. G., & Riggs, I. M. (1990).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preservice elementary scale.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90(8). 6 pp.94-706.

19) 정동욱(2010) 「가상현실공간에서의 수업실습이 예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38-128.

20) 정동욱이 제시한 교수효능감은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교수결과 기대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대한 문항은 21문항이다. 1.학생이 어떤 과목 공부를 평소보다 더 잘한다면, 그 이유는 대개 그 과목 교사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2. 나는 내 과목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더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3.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도 내 과목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4. 어느 과목의 학생 성적이 오른 이유는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5. 나는 내가 가르칠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고 있다. ① 매우 동의한다. 6. 어떤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이 낮은 이유는 그 수업이 비효과적이기 때문이다. 7. 나는 내 과목을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다. 8. 어느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지식 부족은 좋은 수업으로 극복될 수 있다. 9. 학생들의 낮은 성적에 대한 책임을 해당 과목 교사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10. 성적이 낮은 학생의 성적이 올랐다면, 그 이유는 해당 과목 선생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었기 때문이다. 11. 나는 내가 가르칠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12. 교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13. 학생의 성적은 일반적으로 그 과목 교사에게 달려있다. 14. 어떤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성적은 그 과목 교사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잘 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15. 만약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특정 과목 공부를 재미있어 한다는 말을 했다 면, 그 이유는 학생을 가르친 교사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16. 나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칠 과목에 대하여 하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17. 나는 내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18. 만

리커트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표 2>와 같다.

<표 2> 교수효능감 척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역문항)	신뢰도
개인적 교수효능감(11)	2, 3*, 5, 7*, 11, 16, 17*, 18*, 19*, 20, 21*	.690
교수결과기대감(10)	1, 4, 6, 8, 9*, 10, 12*, 13, 14, 15	.691
교수효능감	21문항	.754

* 역문항임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1.0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계수로 분석하였으며 일원 분산분석과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위해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미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4.1.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의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체험 및 교수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평균	표준편차
문화체험 a	2.861	.281

약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교장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내 수업을 평가하도록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19. 나는 학생이 내 과목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모를 것이다. 20. 나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칠 과목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환영할 것이다. 21. 나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칠 과목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	b	3.013	.275
—	c	3.103	.309
—	d	3.587	.400
—	e	3.696	.285
개인교수 효능감		2.091	.474
교수기대감		2.200	.443
교수효능감		2.391	.375

<표3 >을 살펴보면 문화체험의 a,b,c,d,e 그룹 중 a그룹의 평균은 2.861(SD=.281), b그룹의 평균은 3.013(SD=.281), c그룹의 평균은 3.103(SD=.309), d그룹의 평균은 3.587(SD=.400), e그룹의 평균은 3.696(SD=.285)이다.

교수효능감은 개인교수 효능감과 교수기대감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개인교수 효능감의 평균은 2.091(SD=.474)이고, 교수기대감의 평균은 2.200(SD=.443)이다. 하위요인의 합인 교수효능감은 평균이 2.391(SD=.375)로 나타났다.

4.2. 교수효능감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일본문화체험에 따른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일원분산분석결과이다.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 >와 같다.

<표 4> 일원배치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교수효능감	집단간	1.999	4	.500	5.835	.002
	집단내	2.227	26	.086		
	합계	4.225	30			

*p<.05

교수효능감의 F값은 5.835이고 유의확률은 .002($F=5.835, p=.002(p<.05)$)이므로 일본문화체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4.3. 사후검증 결과

일본문화체험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문화체험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사후검증

(I) 해외경험	(J) 해외경험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Tukey
a	b	-.1525	.1536	.856	a
	c	-.2424	.1664	.598	
	d	-.7261*	.2442	.045	
	e	-.8348*	.2132	.005	
b	a	.1525	.1536	.856	a,b
	c	-.0899	.1312	.958	
	d	-.5736	.2217	.102	
	e	-.6823*	.1870	.009	
c	a	.2424	.1664	.598	a,b,c
	b	.0899	.1312	.958	
	d	-.4837	.2308	.252	
	e	-.5924*	.1976	.043	
d	a	.7261*	.2442	.045	b,c
	b	.5736	.2217	.102	
	c	.4837	.2308	.252	
	e	-.1087	.2665	.994	
e	a	.8348*	.2132	.005	c
	b	.6823*	.1870	.009	
	c	.5924*	.1976	.043	
	d	.1087	.2665	.994	

* p<.05

<표 5>의 Tukey 사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체험에 따른 교수효능감은 a그룹이 가장 낮았고 d, e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한번도 문화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a그룹은 d, e 그룹과 한번 문화체험을 경험한 b그룹은 e그룹과 2회 문화체험을 경험한 c그룹은 e그룹과 3-4회 문화체험을 경험한 d그룹은 a그룹과 6개월 이상 연수 및 문화체험을 오랫동안 경험한 e 그룹은 a, b, c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이지만 문화체험

은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4.4. 문화체험과 교수효능감간의 상관관계

문화체험과 교수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문화체험과 교수효능감간의 상관분석

	문화체험	교수효능감	효능감	기대감
문화체험	1			
개인적 교수효능감	.557**	1		
교수 기대감	.478**	.332	1	
교수효능감	.647**	.802**	.814**	1

**<.01

<표 6>을 살펴보면 문화체험과 교수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교수효능감과 하위요인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적 교수 효능감($r=.557$, $p<.001$), 교수 기대감($r=.478$, $p<.001$) 그리고 교수효능감($r=.647$, $p<.001$)과 중상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5. 문화체험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체험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문화체험과 교수효능감의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R ²	t	p
	B	표준 오차	β			
1	(상수	2.536	.129	.419	19.692	.000
	문화 체험	.208	.047			

*** $p<.01$

<표 7>을 살펴보면 문화체험의 횟수와 기간이 많을 수록 교수효능감의 증대가 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637$, $t=4.452$,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일본어 전공을 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일본의 문화체험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험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교수효능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목표가 전인적인 인간양성임을 상기할 때,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신체적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문화체험은 교실에서 교사가 이론적인 일방향 일본어 수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양하며 보다 더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각 대학은 교원양성을 위한 예비교사의 교직과정 이수 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험의 사례로는 학점교류, 해외연수, 문화체험, 교육 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직과정은 예비교사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임용고사준비와 전공과 함께 교직을 이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교직이수를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사에 대한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자신의 전공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신념 즉 교수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직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들이 대학생활 동안 바람직한 사회로의 진출을 꾀하는 교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체험이나 현장에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지기를 시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명호(2005) 「일본문화체험과 일본어학습과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일본언어문화』, 7, 한국일본어 문학회, pp.101-120.
- 김영한·추경진(2010)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과 의 관계」 『특수아동연구』 12(4), 한국특수아동학회, pp. 413-432.
(DOI: <http://dx.doi.org/10.21075/kacs.n.2010.12.4.413>)
- 김애동 · 안병걸(2015) 「일본단기연수를 통한 학습동기유발 및 일본문화에 대한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67, 한국일본어문학회, pp.75-98.
(DOI: <http://dx.doi.org/10.18704/kjll.2015.12.67.75>)

- 김활란(2006) 「문화체험을 통한 일본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27-143.
- 배선아(2012) 「초등예비교사의 일반 교수효능감과 실과 교수효능감 비교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2), 한국실과교육학회, pp. 193-211.
- 배재현(2019) 「예비유아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3), 한국산학기술학회, pp. 149-15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9.20.3.149>)
- 박준언(2012) 「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49-73.
- 송윤희 · 유지은(2019). 「예비 기독교 교사의 영적안녕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및 교수효능감 관계」 『기독교교육정보』, 60,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pp.123-150.
- 이금재 · 허영주(2015)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과의 관계 분석」 『日本文化学報』 67, 한국일본문화학회, pp.87-103.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67.201511.87>)
- 이은숙(2010)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고찰」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학회, pp. 331-353.
- 정동욱(2010) 「가상현실공간에서의 수업실습이 예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38-12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Freeman.
- Enochs, L. G., & Riggs, I. M. (1990).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preservice elementary scale.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90(8). pp.694-706.

논문 투고 일자 : 2019. 10. 13.
논문 심사 일자 : 2019. 11.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11. 06.

<要旨>

日本語教職課程予備教師たちの日本文化体験が
教授効能感に与える影響

鄭旭盛 · 韓美熙

本研究は日本語を専攻している予備教師たちの日本文化体験が教授効能感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分析した論文である。研究対象は南ウル大学の日本語専攻の教職履修学生で、総31名を対象としている。分析の方法として、SPSS21.0を使用して頻度分析、記述統計、一員配置の分析を、相関分析、回帰分析などを実施した。研究の結果として日本語の専攻の学生たちの日本の文化体験は教授効用感と意味ある静的相関関係があることがわかり、日本の文化体験は教授効用感に有意身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従って本研究を通して理論的な学習だけではなく、非常に多様な経験と体験などの融合的な教育がより一層効果的であることが明らかとなり、今後多様な教授学習方法などを通して教育が活性化・拡大されることが期待できる。

The Effect of Prospective Japanese Teachers' Experience of
Japanese Culture on their Teaching Efficacy

Jung, Ug-Sung · Han, Mi-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cultural experiences and teaching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who major in Japanes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1 students who completed the Japanese language teaching course at N University in Cheonan, Chungnam. SPSS 21.0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batch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Japanese cultural experienc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nd influence on teaching efficac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education is not only theoretical learning. education also needs to be converged with a wide variety of experiences.